

하루를 사는 사람

| 김홍호 |

우리가 사는 것은 어제든 내일도 아닌 오직 오늘이라는 하루를 사는 것이며, 그 하루의 삶이 생사를 초월해 살면 그것이 바로 영생임을 말합니다(편집자 주).



사람은 어제를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내일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하루를 삽니다. 아침을 살고, 대낮을 살고, 저녁을 살고, 밤을 삽니다. 어제를 그리며 사는 것도 아니고, 내일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에 쫓기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를 사는 것뿐입니다.

하루 속에는 아침과 저녁이 있을 뿐, 어제와 내일은 없습니다. 하루 속에는 지혜와 사랑이 있을 뿐, 삶과 죽음은 없습니다. 하루 속에는 진리와 생명이 있을 뿐, 몸과 마음은 없습니다. 하루 속에는 어짐과 옳음이 있을 뿐, 있음과 없음이 없습니다.

세상에 새 물이 있을리가 없지만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 땅속을 오랫동안 거쳐 나오면 어느새 새 물이 되는 법입니다. 일체 의식적인 것이 끊어져 버리고, 오랫동안 무의식의 세계를 헤매고 가다가 초의식의 세계로 터져 나올 때 어제니 오늘이니 내일이니 하는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의 하루살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단잠을 자고 깨는 젊은이처럼 사람에게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사는지 죽는지도 모를 정도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얼핏 보면 바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위대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삶을 찾아서 가고 또 가고 찾아가다가, 나중에는 가는 데 지쳐 가는 줄도 모르고 가고 있을 때, 돌연 바위가 터지고, 인연이 끊어지고, 꽃과 잎이 떨어지고, 몸과 마음이 떨어져 나간 후 하나의 참 삶으로 터져 나옵니다. 낡은 세상을 깨쳐버리고 새로 나온 새 사람, 그것이 하루살이입니다. 하루를 사는 것뿐입니다.

하루 속에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몸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일체의 상대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의 절대가 빛날 뿐입니다. 인생은 본래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가 하늘 살이요, 하늘살이가 하루살이입니다.

영생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 생을 초월한 분입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들었나.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이 우주만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우주만물을 내놓으신 분, 낳으신 분, 창조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초월하신 분, 더 간단히 말하면 생을 초월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부활하신 분,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생을 초월하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죽음을 초월하신 분인데, 한 마디로 합하여 영생이란 것은 무엇인가. 생과 사를 초월한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사를 초월한 존재를 알 수 있나. 우리가 생사를 초월할 때 생사를 초월한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생사를 초월하는 것이고, 생사를 초월한다는 말은 우리의 영성(靈性)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생사를 초월한 영이요, 그리스도도 생사를 초월한 영이요, 우리도 생사를 초월한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사를 초월했다는 말은 무엇인가. 죽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라고 되어 있는데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계속 산다는 말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생사를 초월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어찌 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생사를 초월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은 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도 아니고, 나기 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사는 것인가.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생사를 초월하고 사는 삶이 참 삶입니다.

이 생(生)에서부터 사(死)까지의 내가 무엇인가. 그것이 나(我)입니다. 생사라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생사를 초월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나를 초월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럼 나를 초월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소아를 버리고 대아(大我)가 되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것은 빈약하고 형편없기 때문에, 이 형편없는 나를 소(小) 자로 써서 소아라고 합니다. ‘영생’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대아’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대아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나서 죽는다는 시간, 이것은 짧은 시간입니다. 만일 70년을 산다고 해도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크게 시간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무엇인가. 이 소아는 시간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사는데 ‘나’라는 것이 시간적인 주인공이 아니고, 시간적인 삶을 넘어선, 영원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사는, 더 쉽게 말하면 육체적인 나가 아니고, 정신적인 ‘나’가 나란 말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정신입니다. 정신은 무엇인가. 정신은 바로 ‘나’입니다. 정신적인 ‘나’가 나지, 육체적인 나는 나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나’는 대아이고, ‘육체적인 나’는 소아라는 말입니다. 바울

선생 식으로 말하면, 육적인 내가 아니고 영적인 나, 성숙한 자아라는 말입니다. 미숙한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나로 사는 것, 그것이 소아를 버리고 대아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생은 죽은 후의 그런 것이 아니고 대아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서당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밤 계까지 글을 배우고 집에 돌아가려고 문을 열어보니 밖은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어두워서 갈 수가 없다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촛불을 가지고 나와 꺼지지 않게 종이로 말아서는 학생에게 주었습니다. 학생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돌아서려는 순간 선생님이 그 촛불을 훔 하고 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 그 학생은 굉장히 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큰 진리를 깨달아 보 시오. 그 학생이 가만히 서 있으니까 차차 환해지기 시작했으며 차츰 별이 나타나고, 먼 산이 보이기 시작하여 대문이 나타나고, 어느 정도 환해진 속에서 그 학생은 자기 발로 걸어서 대문을 나서 자기 집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소아를 꺼버리고 대아가 되어서 자기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촛불을 끄고 햇빛이 되라”는 말을 곧잘 합니다. 그것도 같은 말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낮이 밝은가, 밤이 밝은가라고 물었습니다. 얼른 생각하기에는 낮이 밝습니다. 그런데 어떤 철인은 낮보다 밤이 훨씬 더 밝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동양사람은 태양이라는 것을 촛불로 봤기 때문입니다. ‘태’ 자는 클 ‘太’ 자이지만, ‘양’ 자는 거짓 ‘陽’ 자이기에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라는 촛불 아래에서 보는 세계는 20리 밖에 안 되지만, 태양이라는 촛불을 꺼버리고 밤에 보는 세계는 몇 억만 광년 밖의 세계도 볼 수 있는 큰 세계입

니다.

밤의 세계라는 것은 대우주이고, 낮은 안방에 촛불을 켜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촛불은 가까운 데는 보게 하지만, 먼 데는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가까운 것은 밝혀주지만 큰 세계, 높은 세계, 먼 세계는 오히려 보이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더 높고 먼 세계를 보려면 가끔 이 이성을 꺼야 됩니다. 우리가 이성을 끄고, 이성보다 좀 더 높은 지성, 영성을 가지고 더 크고, 먼 세계를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소아로 사는 것이 아니고, 대아로 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성만 가지고서 아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면 인생은 비참한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소아를 꺼버리고 대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금년 여름에도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따져볼 때 사람의 무게와 사람과 똑같은 물의 무게 비중을 비교하면 물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과학적으로 물에 뜨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폐 속에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뜨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적으로 물에 뜨게 되어 있는 인간이 왜 물에 빠져 죽느냐.

이 세상의 모든 동물 가운데 물에 빠져 죽는 동물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푹푹하고, 동물들이 바보라고 하는데 사실은 물에 안 빠져 죽는 동물들이 푹푹하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바보가 아닐까요. 코끼리도 물에 들어가면 뜹니다. 하마도 소도 양도 고양이도 벌레도 다 뜨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우주의 모든 동물은 어느 하나 빠져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학적으로 따져 볼 때는 절대 안 죽을 사람이 왜 빠져 죽느냐? 사

람은 물에 뜨는데 얼마만큼 뜨는가 하면 손바닥만큼 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만 뜨게 만드셨나? 사람의 얼굴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물 위로 얼굴만 내밀고 눈을 뜨고 코로 숨만 쉬며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마를 보셨을 겁니다. 이 하마가 뜨는 것을 보면 눈과 코만 뜹니다. 재미있게 하마는 눈과 코가 튀어 나왔는데 그만큼만 띄워주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손바닥만큼만 뜨면 절대 안 죽고 떠서 숨을 쉬는데, 그런 사람이 왜 빠져 죽느냐? 늘 하는 말이지만 머리를, 이성을, 다른 말로 하면 소아를 물 위에 내놓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목이 나무막대기와 같다고 합니다.

사람은 다 저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목을 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물 속에 쑥 들여보내면 저절로 떠올라오고, 그 상태에서 코로 숨만 쉬면 사는데, 머리를 절대 들어 밀려고 하지 않고, 살겠다고 손발만 휘저어 주위가 진공상태가 되고, 옆의 물이 진공을 향해서 밀려들어오기 때문에 물에 빠지는 것이고, 이것을 소위 귀신이 잡아당긴다고 우리는 표현하고들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동작에 의해서 쭉 아래로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의 정신이 똑똑할 때 건지려면 같이 죽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법은 한 대 치는 것뿐입니다. 한 대 쳐서 정신이 나가면 떠올라오니깐 그때 끌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러 들어가면 자꾸 매달리니까 그 사람도 죽고, 건지려던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도 물에서는 다 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져 죽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의식 때문입니다. 그 의식은 곧 공포심이며, 공포심은 소아인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나?

인간은 본래 행복하게끔 되어 있기에 본래의 인간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아를 버리고 대아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대아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소아, 그런 소아를 집어던져버리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아가 되어서 대자연과 하나가 되고, 쑥 떠올라 오고, 기분 좋게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왜 빠져 죽는가. 소아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아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자기의 이성을 집어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영성이 되어서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본래 타고나기를 행복하지 않을 수 없게 태어났어요. 늘 여러분에게 기쁘다, 기쁘다 그런데 사람은 원래 행복하지 않을 수 없게 태어났습니다.

원래 사람은 행복하게끔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에 빠지지 않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원래 행복하게 태어났는데 세상에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결혼이라도 하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한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결혼하면 후회할 것이다.” “그러면 결혼 안 하면 행복할까요?” “결혼을 안 해도 후회할 것이다.” 결혼을 해도 불행하고, 결혼을 안 해도 불행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같은 것을 가지고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나? 인간은 본래 행복하게끔 되

어 있기에 본래의 인간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드린 소아를 버리고 대아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은 결혼해도 행복하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항상 행복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이다음에 또다시 수영하는 얘기를 하지 않게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가슴에 손을 대고,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왜 행복하지 않은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 머리를 물 속에 집어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머리를 하나님 앞에 집어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머리를 그리스도 앞에 숙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남에게 욕을 먹고, 나중에 고통이 오며,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내가 대아로 살지 못하고, 소아로 살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기를 한번 두들겨 보 시오. 내 코가 물 밖에 나왔나? 내 머리가 물 속에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물 속에만 쑥 들여보내면 인간은 자연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아는 무엇이고, 대아는 무엇인가? 우리 집의 예를 들어 얘기하면, 아내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무엇이든지 맛있는 것이 있으면 자꾸 아이들에게 먹여요. 아이들은 아무리 먹어도 마냥 배고픈 겁니다. 아무리 먹어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암만 먹어도 불행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이들에게 다 먹이고 자기는 안 먹어요. 나는 아내가 언제 밥을 먹는지 모릅니다. 먹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먹는데 언제나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모

(母) 자는 없을 무(無) 자와 같은 자입니다. 어머니는 안 먹고도 언제나 행복한 것이고, 아이들은 늘 먹으면서도 언제나 불행한 겁니다.

아까 영적 자아니, 영원한 자아니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린이로 살지 말고, 어른으로 살자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 어른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어른으로 사나. 하나님은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다 비를 주 니다. 어른의 눈에는 전체가 같이 보이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르게 보인다 하면 어린애로 떨어진 것입니다. 어린이의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른의 눈에는 같이 보입니다. 어른의 눈에는 일체가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일체를 가집니다. 가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체를 가진 분, 그것이 아까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일체를 가질 권세를 가졌습니다.

어른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를 아는 것과 하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모르고 하나를 못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둘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악과라는 말로 씁니다. 분별지(分別智)가 됐다는 겁니다. 어른지라는 것은 통일지요, 절대지요, 전체지인데 반해, 좋다 나쁘다 곱다 밍다, 이런 가치 판단이 되기 시작하면 벌써 어린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통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낙원에 떨어졌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분별지가 되었으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도 어른이 된 것이 아닙니까.

어른의 세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나

다 비를 주시는, 절대의 세계를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결론은 “어른이 되어서 살자”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준다는 것이고, 주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비가 오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선과 악의 구별 없이 다 줍니다. 그러나 받는 데는 차별이 있습니다. 많이 주어도 나는 저 애보다 적은데 하는 차별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받는 마음은 언제나 차별심이 생기는 것이고, 주는 마음은 언제나 전체적인 마음입니다. 마음이 받는 마음이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어른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주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대아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끝) 

- 이 글은 '김홍호 사상 전집 - 하루를 사는 사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홍호** | 다석 유영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향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

빛 힘 숨(자가 부활 승천)

요한복음 강해 (전5권) 세트

김홍호 저 | 사색 刊 | 56,000원



〈김홍호 사상 전집〉 제8권~12권이 출간 되었다. 이번 책은 『빛 힘 숨:

십자가 부활 승천』의 제목을 가진 요한복음 강해 다섯 권이다. 이 책은 일러두기에 소개된 것처럼 21장 81절로 구성되어 있다. 21장은 요한복음의 21장이며 81절은 81회의 강의를 말한다.

이 책은 저자 김홍호 선생이 1993년 3월 7일부터 1995년 6월 25일까지 이화여대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강의했던 것으로 총 2년 반, 다섯 학기 동안 해온 81회의 강의들이다. 이 강의들을 학기 별로 나누어 전5권으로 출간하였다.



김홍호 사상 전집

기독교 설교집 세트(전6권) (CD 1장 포함)

김홍호 저 | 사색 刊 | 40,000원

저자의 강의와 설교 등을 모아 총 6권으로 엮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에다가 풍부한 비유를 곁들여, 자신이 얻어낸 실천과 깨달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절묘하게 전달해온 저자가 펼쳐온 삶의 철학을 이어나간다.

(구성) 제1권 사람 삶 사랑, 제2권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 제3권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4권 믿음의 힘, 제5권 하루를 사는 사람, 제6권 영원을 사는 사람